

제 92 회

10月 12日,

- ... 본회가 주최한 第92 ...○
- ... 회 發明教室이 지난 ...○
- ... 10월 12일 발명장려 ...○
- ... 관 연구실에서 개최 ...○
- ... 됐다. 每月 둘째 토요일 ...○
- ... 일 午後 1時 30분에 ...○
- ...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
- ... 이 달에도 1백여명이 ...○
- ... 參席하여 盛況을 이 ...○
- ... 루었다. 이날 發明教 ...○
- ... 室에서는 우신모조화 ...○



인조과일 발명가 우신모조화사 홍성모 사장

우신모조화사 홍성모 사장은 인조 과일의 제조방법으로 5건의 특허를 받은 발명가.

그는 인조 과일 제조에 관한 것 외에도 학습 놀이기구와 자동병마개 등을 발명, 현재 1백 30여 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출원중인 것까지 합치면 그가 발명한 것은 거의 2백여 건에 이른다.

우신모조화사는 인조 과채류 제조에 관한 홍사장의 특허를 가지고 1981년에 설립한 회사다. 처음 자본금 1백만원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은 연간 3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

리고 있으며, 수출도 활발하다.

홍사장은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에도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인조 과일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동안 공백기가 생겨 사업 구상을 하던 중 우연히 플라스틱 인조 과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의 인조 과일은 쉽게 찢이 벗겨지고 변색도 잘 되는 데다가 색상도 빨강, 노랑, 초록 등의 단색으로만 처리되어 전혀 실물과는 다른 점에서 착안, 조악한 모조품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야심으로 신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제

품들을 구입해서 플라스틱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소량의 약품들을 섞어 그 반응을 분석해 내고 플라스틱에 칼라링 반응을 실험하는 작업에 매달린 지 2년, 페인트가 플라스틱 표면에 스며들어 벗겨지지 않고 변색도 안되며, 색상이 실감나는 자연스러운 인조 과일을 발명해냈다.

그가 만들어 낸 복숭아는 얼핏 보기에는 물론 손으로 만져보아도 실물과 거의 다름없다. 까실까실한 복숭아 털이 붙어있을 뿐 아니라 색상도 진짜 복숭아처럼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어 햇빛에 잘 익은 탐스러운 과일로 착각할 정도.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사 홍성모 시장의 成 ...○
- ... 功事例 發表에 이어 ...○
- ... 金寬衡 本會 상근 이 ...○
- ... 사의 「발명의 창출과 ...○
- ... 사업」에 대한 강의와 ...○
- ... 洪載日 辨理士의 「産 ...○
- ... 業財産權制度」에 대 ...○
- ... 한 강의와 토론이 있 ...○
- ... 었다. 發明家の 成功 ...○
- ... 事例를 간추려 紹介 ...○
- ... 한다.<柳泰洙 記> ...○

결국 이 아이디어로 특허를 따냈고, 본격적으로 발명가이자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2년 간의 연구기간이 결코 수월한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일을 벌였는데 금새 바닥이 나버리더군요. 심각한 위기가 두 번 있었지만 그만 두기에는 미련이 남고 오기가 생겨서 밀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좋은 덕분에 지금에 서야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자 위할 수 있지만, 발명의 길은 의욕과 집념만으로 헤쳐 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다.

상업성 아이디어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인천에 공장을 마련, 양산에 돌입했다. 남대문시장 조화가게와 독점 계약을 맺고 출발, 국내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오세아니아·남미 등지로 연간 20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1982년 뉴욕 국제발명전과

제네바 국제 발명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이듬해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1988년에는 서독 국제발명전과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에서 새로운 인조과일 착색 표면 처리 방법으로 금상을 수상하여, 이듬해 발명의 날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독에서 수상한 발명품은 과일의 미세한 세포조직까지 카피해낸 것으로 금형에서 뽑아낼 때 생기는 합합선(合合線)까지 없애 한층 실물에 가깝다.

홍사장 스스로도 이 발명품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80년 인조 과일을 생산하면서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8년만에 보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은 셈이다. 그의 신 발명품에는 벌써부터 주문이 쇄도, 양산체계만 갖춘다면 수출은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홍사장이 지금까지 연구에 투자한 금액은 6억여원. 품목 한 가지를 개발해내는 데만 4~5백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가 생산해내고 있는 과채류는 포도, 복숭아, 사과, 귤, 옥수수, 밤 등 1백 20여 종이나 된다. 최근에는 '심장달린 구두'(구두 내부를 항상 건조하게 해줌)를 개발했다.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발명가라고 소개하는 홍사장은 그의 연구실에서 진짜 과일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향기나는 과일, 실물을 만지는 것 같은 촉감, 실감나는 색상과 형태, 스스로도 혁명적이라고 평가하는 발명품으로도 그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좀 더 그럴 듯한 형태와 색상, 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의 연구실은 더 많은 약품병과 화학 물질로 채워질 것이다.

<♣>